

남북 민족화학학술토론회 참관기

# 평양에서 열린 남북민간책임기관간의 첫 학술행사 기초과학분야 남북 교류 · 협력 토대 마련

글 | 부경생 \_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ksboo@snu.ac.kr

**필**자는 지난 5월 8일부터 1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민족화학학술토론회'에 과총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였다. 올해 모임은 해외 교포학자 참여 없이 남북 양측의 과학기술민간책임기관간의 공동주최로 평양에서 열린 첫번째 학술행사로서 남북간 직접 학술교류의 장을 마련했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 김포공항을 이륙한 북한의 고려민항기는 중국을 통하지 않고 1시간 만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였다. 지난해 4월 4일부터 개최되었던 남북한 최초의 '민족과학기술학술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중국 베이징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이틀 만에 평양에 들어갔던 전례를 생각하니 그 동안 우리가 얼마나 먼 거리를 우회하여 서로 왕래하고 있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 남북 화학자 160여명 참여, 논문 51편 발표

이번 학술토론회는 우리의 과총과 북한의 조선과학기술총연맹이 주최하고 과학기술부와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 등의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남북한간에 개최된 두번째 학술토론회인 이번 민족화학학술토론회에 남한에서는 논문발표 화학자 30명, 토론에 참여한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채영복 과총 회장

연구과제 책임자급 30명 등 총 60명이 참여했고, 북한에서는 논문 발표 화학자 21명, 토론참여자 30명 및 일반참가자 50명 등 총 100여 명이 참여하였다. 화학학술토론회는 무기 및 나노화학 분야(16편), 촉매 분야(9편), 고분자화학 및 재료 분야(11편), 유기화학 분야(15편) 등 네 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모두 5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분과별로 발표된 논문 수에서 처음의 두 분과는 남북간에 비슷하였고, 나머지 두 분과는 2:1 정도였다. 그러나 각 분과



평양 순안공항 도착 후 기념촬영

별로 남북학자가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맡아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단지 질문내용을 미리 제출하고 그 내용들을 정리하여 종합토론회에서 진행된 면이 특이하게 보였다.

남한측의 발표자들은 여러 대학교(이화여대, 연세대, 과학기술원, 서울대, 성균관대, 포항공대 등에서 2명 이상이 참여)와 연구소(화학연구원과 과학기술연구원 등에서 2명 이상이 참여)의 화학자들이었는데 북한측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였다. 예를 들면 북측의 발표자들은 주로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리과대학, 함흥화학공업대학 등의 교수들과 조선국가과학원의 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이었다.

조선국가과학원은 북한의 모든 연구소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급 조직체로 8개의 연구분원(건설건설분원, 전자자동과학분원, 생물분원, 세포 및 유전자공학분원, 석탄과학분원, 경공업과학분원, 철도과학분원, 산림과학분원 등), 1개의 지방분원(함흥분원), 4개소의 연구원(수산과학연구원, 동의과학연구원, 의학과학연구원, 농업과학연구원 등) 및 40여 개의 직할 연구소들과 과학기술지도국, 자연과학지도국, 과학교류국, 자료계획처, 과학기술간부양성소, 과학기구생산부, 국가학위학술진흥위원회 등을 거느리고 있다.

그 중 일제시대부터 한반도의 화학산업중심이라는 함흥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국가과학원의 화학분야 연구는 함흥분원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번 학술토론회에도 리효선 함흥분원장 등을 위시하여 많은 화학자들이 함흥분원의 무기화학연구소, 분석화학연구소, 석유화학 및 메타놀연구소, 비날론연구소들의 연구원들이었다. 이 외에 나노기술도입중심, 중앙실험분석소 등의 연구원들도 논문을 발표하였다.

### 남북간 직접 학술교류의 장 마련

개회식에서 북한의 리충복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과학기술분야에서도 민족공동의 이익과 인류의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하였고, 과총의 채영복 회장은 “앞으로 남과 북의 과학기술인들이 더욱 빈번하게 왕래하고, 토론하고, 보완하고, 협력해서 우리 민족의 과학기술 역량을 드높일 때 우리 민족중흥의 시대가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폐회식에서는 북측의 최상건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등이 과학기술과 민족의 발전을 얘기하였고, 남한 화학자팀 단장인 고려대 진정일 교수는 “오늘 우리가 가진 바와 같은 양측 화학자들의 모임과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측이 모든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이 같은 모임을 하루 속히 연례화하자”면서 남북학술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학술교류 외에 풍력과 수력에너지 및 동북아시아 지구환경 변화에 대한 남북공동연구타당성 조사 등 6개 공동연구과제에 대한 우리측의 요구사항도 전달하였다. 이번 화학학술토론회에 참석한 남한 학자들은 북한 학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만남이었다고 평가하였다.

필자는 화학을 전공하지 않고 곤충화학생태학을 연구해온 터라 이번 화학학술회의에서 토론한 내용들을 학문적으로 평가할 입장은 아니다. 그 대신 부전공으로 북한의 식량위기 원인과 농업과학 연구 실상 및 과학기술용어의 남북간 이질화 문제 등 북한의 농업 연구실상과 생태계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농업과학 분야의 연구원들과 접촉할 기회가 없어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지난해 방문하였던 평양시의 3대혁명전시관 중 농업관에서 그들



민족화학학술토론회에서 촉매분야에 참여한 남북 과학기술자 기념촬영



남북과학기술협력 연구과제책임자와 북측 관계자와의 간담회



폐회식 개최 후 채영복 회장, 리충복 민화협 부회장 등 남북 대표단 기념촬영



환송연에서 채영복 과총 회장(오른쪽)과 리충복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의 지속적 협력을 위한 건배

입장에서 본 북한농작물의 생산력 등에 대한 통계자료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번 방문에서는 국가과학원 간부에게 필자가 지난해 토론회에서 발표한 바 있는 곤충페로몬을 북한의 과수원에서 자연친화적인 해충방제방법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조언을 했다. 북한의 황해남도 과일군이나 함경남도 북청지역에서는 사과 등 과수원 농장이 수천정보 집단 배치돼 있어 해충방제수단으로 곤충페로몬을 활용하는 데는 남한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정기적인 남북학술모임 개최 제안

북한의 식량부족 못지않게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자연생태계의 복원문제로 여겨졌다. 과거 중국의 연변지역 여행시 경사가 급한 야산을 개간하여 농사짓고 있는 북녘 땅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는데, 이번 여행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관찰하게 되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내려 다 보이는 북쪽의 과도한 야산개간 모습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가뭄과 폭우와 같은 기상 이변시 자연생태계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깊은 상념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와 동시에 생태계를 복원하는 과제도 협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간의 과학기술융어와 생물명의 이질화문제도 심각하여 하루 빨리 바로 잡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고 환송연사에서 제안하였다.

이 외에도 남북학술토론회에서 토론분야를 화학 외의 다른 기초분야는 물론 의학, 농학 등 다른 응용분야에까지 더 확대하고, 또한 실제 토론기간도 늘리고 연구자들간에 상호 방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제안하였다. 나아가서 참여자들이 예측하여 발표와



김책공대 전자도서관 방문

토론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모임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자고 필자도 제안하였는데 그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진정한 인간적인 접촉기회가 많아질수록 해결할 수 없는 난제는 없기 때문이다.

이번 평양방문은 학술 발표와 토론이 주목적이었지만 평양시내, 평양과 남포 및 평양과 모향산간 버스여행을 통하여 만원버스로 시달리면서 출퇴근하는 시민과 학생들, 농사를 짓는 농민들, 부족한 식량을 좀 더 생산하기 위하여 급한 경사지의 야산들을 과도하게 개간한 북녘 산하와 그에 따른 생태계의 파괴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여행이었다. 언제쯤 우리 북녘동포들도 먹거리 문제를 자연친화적으로 해결하고 국제학술회의에서 남북학자들이 서로 조언하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위안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김책공대 도서관의 학생들,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이나 상점내 점원들의 친절한 자세, 하나라도 더 팔려는 북무원들의 진지한 모습은 가까운 장래의 발전을 상상할 수 있게 해주었다. ㉔